국외출장 보고서
(시각예술 국제 주요행사 리서치)

1.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2017년은 국제 미술계 주요 행사(베니스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뮌스터 조각프로젝트)가 한번에 열리는 해로 이는 10년만에 찾아오는 기회임, 세계 주요 미술전 리서치트립을 진행하여 내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각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고자 함

*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2년주기), 카셀도큐멘타(5년주기), 뮌스터 조각프로젝트(10년주기)

○ 출장 기간 : 2017. 6. 12(월) ~ 6. 19(월) / 6박 8일

- 황진수 부장, 김기용 차장, 이종국 과장, 이영주 과장 : 6.12(월)~6.19(월) / 6박8일
- 변서영 대리 : 6월12(월)~6.18(일) / 5박7일

○ 출장 장소 : 독일 뮌스터, 독일 카셀, 이탈리아 베니스, 독일 베를린

○ 출장 인원 : 5명

소속부서	직급	성명	성별	담당업무	출장기간
시각예술부	부장	황진수	남	○리서치 총괄	6.12(월)~6.19(월) / 6박8일
창의예술 인력센터	차장	김기용	남	○영상·사진 등 기록물 촬영 ○카셀도큐멘타 관련 자료조사 및 보고서 담당	
성과평가부	차장	이종국	남	○영상·사진 등 기록물 촬영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관련 자료조사 및 보고서 담당	
시각예술부	과장	이영주	여	○현지일정조율(베니스) ○방문 미술행사 관련 자료조사 및 보고서 총괄	
국제교류부	대리	변서영	여	○출장준비 사전준비 총괄 ○방문 미술행사 관련 자료조사 및 보고서 총괄	6월12(월)~6.18(일) / 5박7일

2. 주요 일정

구분	일자	출발 및 도착지	주요 일정	비 고
1일	6월 12일(월)	인천 →뮌스터	○ 인천출발 ○ 뮌스터 도착	뮌헨경유
2일	6월 13일(화)	뮌스터	○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관람	
3일	6월 14일(수)	뮌스터 →카셀	○ LWL 미술관 및 뮌스터조각프로젝트 아카이브 방문 ○ 오후 이동 (기차)	
4일	6월 15일(목)	카셀	○ 카셀 도큐멘타 관람 (프리디치아눔 미술관, 도큐멘타홀 등) ○ 그림형제박물관 방문	
5일	6월 16일(금)	카셀 →베니스	○ 베니스 이동 ○ 아카데미아 미술관 관람	*변서영 베를린 이동
6일	6월 17일(토)	베니스	○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 관람 ○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관람	
7일	6월 18일(일)	베니스 →인천	○ 베니스출발	
8일	6월 19일(월)		○ 인천도착	

3. 업무수행 내용 및 결과

가.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방문 및 리서치

○ 전시기간 : 2017. 6. 10(토) ~ 10. 1(일)

○ 전시장소 : 독일 뮌스터

○ 주제 : 도시환경의 디지털화

○ 전시총감독 : 카스퍼 쾨니히(KASPER KÖNIG)

○ 주요내용

- 행사개요 : 1977년 시민들의 공공미술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져 세계적인 미술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호숫가와 성당, 공원, 광장 등 도시 곳곳에서 조각과 설치, 영상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음. 2017년에는 총 36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3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함
- 에이 아라카와(Ei Arakawa, 1977), 아이세 에르크만(Ayse Erkmen, 1949), 코키 다나카(Koki Tanaka, 1975), 마이클 딘(Michael Dean, 1977), 사뮤엘 나이홈(Samuel Nyholm, 1954), 헤르브 욤비(Herve Youmbi, 1973) 등이 2017년 대표작가로 참여함
- 또한, 작품 중의 일부는 협의를 통해 기증형식으로 영구작품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지도를 들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다보면 과거의 작품들도 만나게 되는데 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 1941), 레베카 호른(Rebecca Horn), 마틴보이스(Martin Boyce, 1967), 댄 그래햄(Dan Graham, 1942), 도널드 저드(Donald Judd, 1928),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1929) 등의 작품이 보존되어 있음
- 다만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품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료판매용 지도(3유로)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고, 전시관람 안내소 설치 등이 원활하지 않아 관람객의 입장에서 작품을 찾아보기 매우 어려웠던 점 등 행사의 명성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도시 곳곳의 건물 벽면에 설치된 Sany(Samuel Nyholm)의 작품</td><td>Bruce nauman의 작품 'Square Depression'</td><td>Ayse Erkmen의 올해 작품 'On Water'</td></tr>
<tr><td> </td><td> </td><td> </td></tr>
<tr><td>헨리무어의 조형물 왼쪽으로 설치된 트럭은 Cosima von Bonin and Tom Burr의 작품 'Benz Bonin Burr'</td><td></td><td>Rosemarie Trockel의 2007년 출품작 'Less Sauvage than Others'</td></tr>
</table>

나. 카셀 도큐멘타 방문 및 리서치

○ 전시기간 : 2017. 6. 10(토) ~ 9. 17(일)

○ 전시장소 : 독일 카셀

○ 주제 : 아테네에서 배우기

○ 전시총감독 : 아담 심칙(Adam Szymczyk)

○ 주요내용

-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독일 중부의 소도시 카셀을 예술로 살려내고자 1955년 시작되었으며, 카셀 예술대학 교수 아놀드 보데(Arnold Bode)에 의해 창설되었음
- 나치의 검열로 인하여 단절된 독일 현대미술을 이어나가고자 시작되어 오늘날 손꼽히는 국제 현대미술전으로 발전하였고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주로 전시됨
- 프리드리치아늄, 도큐멘타할레, 노이에 갤러리, 노이에 노이에 갤러리, 그림형제박물관 등 카셀 지역 곳곳에 있는 전시공간 뿐만 아니라 중앙역 및 광장 등의 장소등을 활용하여 도시 전역에서 전시가 열림
- 한국작가로는 백남준(1977년), 육근병(1992년), 양혜규, 문경원·전준호(2012년)가 참여했으며 올해 전시에는 김수자 작가가 참여함 (김수자 작가의 작품 '보따리'는 프리디치아늄 1층과 2층에 전시되어 있음)
- 2017년도 전시는 서구 민주주의의 기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그리스 아테네와 독일 카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됨(아테네 전시 : 2017. 4. 8(토) ~ 7. 16(일))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주요 전시장인
프리드리찌아눔(Fridericianum)</td><td>김수자 작가의 작품 '보따리'</td><td>Janin Antoni의 작품 'Slumber'</td></tr>
<tr><td> </td><td> </td><td> </td></tr>
<tr><td>마르타 미누힌(Marta Minujin)의
작품 '책의 파르테논' ①</td><td>마르타 미누힌(Marta Minujin)의
작품 '책의 파르테논' ②</td><td>Mattin의 영상작품 'Social
Dissonance'</td></tr>
</table>

다. 베니스비엔날레 방문 및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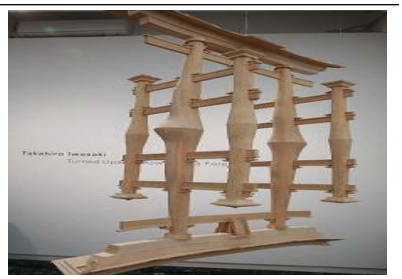
○ 전시기간 : 2017. 5. 13(토) ~ 11. 26(일)

○ 전시장소 : 이탈리아 베니스

○ 주제 : Viva Arte Viva(예술만세)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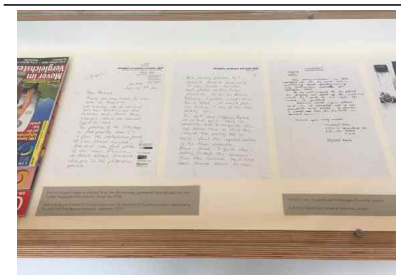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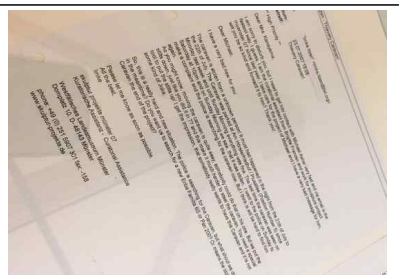
- 크리스틴 마셀 예술감독이 이끄는 올해 행사의 주제는 예술 만세라는 뜻의 '비바 아르테 비바'(Viva Arte Viva)러, 한국관은 이대형예술감독, 코디최·이완 작가가 참여하여<Counterbalance: The Stone and the Mountain>을 주제로 전시를 선보임
- 본전시에는 한국작가 2인(김성환, 이수경)을 포함하여, 51개국 120명의 작가가 참여함
- 2017년 수상결과
  · 국가관 황금사자상 독일관, 국가관 특별상 브라질관
  · 본전시 황금사자상 Franz Erhard Walther (독일, 1939년생), 본전시 은사자상 Hassan Khan (이집트, 1975년생), 본전시 스페셜멘션 : Charles Atlas (미국, 1949년생), Petrit Halilaj(코소보, 1986년생)

		
한국관 전시장 앞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독일관의 퍼포먼스 '파우스트'	일본관 'Turned Upside Down, It's a Forest'

라. LWL미술관 내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아카이브 센터 방문

○ 1977년 처음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를 시작하던 당시부터 생성된 문서 및 사진들에 대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며 1977년 시작 이후 4회차를 진행하며 쌓아온 전시 결과물 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 중 생산된 공적인 문서가 아카이빙의 주요한 자료로 보관되고 있음

○ 향후 한국관 전시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매년 새로운 전시 추진시 생성되는 베니스비엔날레 재단과의 공적인 문서 및 전시관련 제출 서류 등을 보다 촘촘하게 아카이빙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뮌스터조각프로젝트 아카이브 ①	뮌스터조각프로젝트 아카이브 ②	뮌스터조각프로젝트 아카이브 ③

마. 기획형해외레지던스 해외 거점 모니터링 및 참여작가 면담

○ 베를린 자유대학교 방문 및 작가면담

- (공간) 참여작가가 사용하는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사무실은 시내로부터 약 40~50분정도 떨어진 공간으로, 책상 3개정도가 들어가 있는 매우 작은 사무실임. 참여작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있으나,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에게는 실질적 활용도가 떨어져 보임
- (작가 현지활동) 베를린에 위치한 대안공간인 논베를린(NON Berlin)을 통해 낭독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대안공간을 매개로 하여 연계된 베를린 거주 타장르 아티스트와 함께 활발한 교류 및 공동작업을 해나가고 있음

○ 베타니엔스튜디오 방문 및 작가면담

- (공간) 매우 커다란 건물의 일부층을 베타니엔 스튜디오가 사용하고 있음. 베타니엔에 있는 스튜디오는 약 25개로, 전 세계에서 온 작가들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거주하고 있음. 현재 한국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예전에도 한국작가들이 사용하던 공간으로 면적은 비교적 넓은 편임. 스튜디오 안에는 취사시설과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으며, 화장실·샤워실·세탁실은 공동으로 사용
- (현지 서비스) 베타니엔 측에서 베를린 시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으며, 기획자들과의 만남 기회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작가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지하에 있는 목공실, 작업실, 페인트실에는 다양한 장비, 자재, 공구 등이 구비되어 있어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작업을 위한 지하공간 사용시에는 안전문제로 인하여 혼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전문인력과 시간을 매칭해서 작업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함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베타니엔 스튜디오 입구</td><td>유비호작가 스튜디오에서
바라본 건물의 안쪽구조</td><td>작가소개책자 소개하는 유비호 작가</td></tr>
<tr><td> </td><td> </td><td> </td></tr>
<tr><td>유비호작가 스튜디오 내부 ①</td><td>유비호작가 스튜디오 내부 ②</td><td>베타니엔 1층에 위치한 전시공간</td></tr>
</table>